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와 한국학 연구의 확대

고성훈(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1.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구축

승정원일기는 조선시대 왕명출납 기관인 승정원에서 날마다 국왕의 정치 행위 등을 기록한 편년체 역사 기록이다. 현재 인조 때부터 순종 때까지 288년간의 기록이 남아 있다. 단일 기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2001년부터 승정원일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 완료하였다. 승정원일기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를 계기로 승정원일기가 조선시대와 한국 근대 역사에 대한 기록일 뿐만이 아니라, 한국학 전반에 걸친 사료의 보고임이 드러났다. 국사편찬위원회의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의 핵심인 원문DB구축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승정원일기는 원본 3,234책, 영인본은 141책, 기사 수 약 180만 건, 글자수 약 2억 3천만 자에 달한다. 본명 정보를 포함해 DB로 구축한 글자로는 약 2억 5천만 자에 이른다. DB구축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며, 영인본은 1960년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규장각 소장 원본을 탈초, 필사하여 영인한 것이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은 앞의 원본과 영인본을 대본으로 전문을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원문DB구축의 작업 공정으로 크게 ① 원문 입력 ② 색인어 발췌 ③ 교열 교감 ④ 초서원본대조 작업의 과정을 거쳤다.

첫째, DB구축을 위한 첫 단계 작업인 원문 입력은 한자의 효율적인 입력을 위해 고안해낸 이른바 새그먼트 형식의 '뿌리법'을 이용하였다. 일종의 '한자 고속 입력법'이다.

둘째, 색인어 발췌는 인명, 지명, 서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발췌한 색인어는 약 1,000만 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 작업으로 DB 검색이 편리해졌고, 이 데이터는 이후 사전데이터를 제작하는데도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교열 교감의 목적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작업자에 따른 질의 편차를 인정하여 세밀한 교열과 교감을 거쳤다. 교감은 원본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4개의 교감부호 즉, 오자 [], 탈자 < >, 연문(), 판독불능◆을 사용하였다. 또 문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개의 문장부호(쉼표, 마침표, 물음표, 중간점)를 쓰고 있다.

넷째, 초서원본대조 공정은 데이터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다. 처음에는 원문을 입력하는 대본이 승정원일기 영인본이었기 때문에 교열과 교정을 거친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100% 신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시간과 인력,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초서원본대조 작업을 시작하였다. 다만, 정조 이후의 작업 대본은 영인본과 원본을 동시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초서원본대조를 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초서원본대조는 영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 작업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연수과정을 수료한 인재들을 비롯해 한문과 초서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후기에 몇 번의 소실을 거치고 改修한 부분이 있어서 해독하기 어려운 초서가 많고 영인본의 조판 방식에 차이가 있어 DB 구축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담당자와 참여자들의 노력으로 순도율 99.9% 이상의 완성도 높은 원문DB의 구축을 완료할 수 있었다.

원문DB구축 완료 시점과 병행하여 승정원의 규정집이자 운용을 위한 사례집이라 할 수 있는 □銀臺條例□와 □銀臺便攷□의 원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승정원일기 원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승정원의 실상과 운용 사례까지 승정원일기 DB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다.

또 기사제목 작성은 2008년 이후 보류되어 왔는데, 이 기간 동안 승정원일기 기사를 주제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통해 기사제목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2015년에 새 방법으로 기사제목 작성을 재개하여 한 해 동안에 약 50만 건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아직 기사제목 작성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으며, 조속히 완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2015년에는 그간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검색엔진이었던 KRYSTAL이 더 이상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사고 등에 신속

히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검색엔진으로 교체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는 아래 사진과 같이 승정원일기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하였다.

새롭게 개편한 승정원일기 홈페이지



2.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활용

승정원일기DB는 워낙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효율적 검색을 통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아래의 승정원일기 기사 화면을 통해 승정원일기 DB의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승정원일기

승정원일기 31책(일초본 575책) 영조 즉위년 10월 2일 일신 1724년 癸卯(庚申) 12년

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 朝晴夕陰

3 行都承旨 南就明 坐。左承旨 俞命凝 坐。右承旨 李重述 坐。左副承旨 李眞淳 坐。右副承旨 柳綬 坐。同副承旨 趙遠命 坐。注書 李爲益 仕諱 閔祈 式。事竣假注書 李宗白 注。

4 最德宮 無妾閣의 儀次에 머슴

○ 上在 最德宮 無妾閣 儀次

朝哭 후 承政院 등에서 大王大妃殿의 안부를 물음

○ 朝哭後, 大王大妃殿, 政院 玉堂問安. 答曰, 知道.

안부를 묻고 大王大妃殿의 환후에 대해 醫女를 入診시켜 살피기를 청하는 藥房의 계

○ 藥房都提調臣 李光佐, 提調臣 李暉, 副提調臣 南就明 啓曰, 伏未審夜來聖體, 若何? 手指麻木之候, 更無往來神氣乎? 受鍼停止, 已至多日, 臣等, 今日不可不率諸醫, 入診詳察氣候矣. 大王大妃殿氣候, 夜間復若何? 湯劑進御, 而頭疼之候及腰脚 脚部脚緊等候, 裏氣凝滯之候, 其有向減之效, 眩暈等諸症候, 尙尙差減乎? 痰腫比昨, 何如? 卽令醫女入診, 詳察症候宜當, 大妃殿氣候, 亦復若何? 藥糧之候, 不至有加乎? 臣等終宵憂慮, 敢來問安, 玆此仰蒙, 答曰, 知道. 大王大妃殿痰腫及諸症候, 朝書已爲下教于醫女, 而大妃殿氣候一樣, 予則無事矣.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大殿·大妃候·中宮殿, 政院 玉堂問安. 答曰, 同極.

二品以上 등이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大殿·大王大妃殿, 二品以上·六曹·大司諫問安. 答曰, 知道.

5 10월 1일(신미)

- 最德宮의 儀次에 머슴
- 朝哭 후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藥房에서 大王大妃殿 등의 안부를 물음

10월 3일(계유)

- 最德宮의 儀次에 머슴
- 朝哭을 한 뒤 承政院 등에서 大殿 등의 안부를 물음
- 大王大妃殿의 건강이 좋지 않은 시기에 承政院 등에서 大...

1) 정보의 성격에 따른 구분과 배치

일자에 속해 있는 정보들을 성격별, 기사별로 분류함으로써 해당일자가 담고 있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일자정보, 날씨, 좌목,

기사의 구분을 통해 성격이 다른 정보들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배치하였다. 기사의 경우 권점(○)을 기준으로 다시 각기 세분화함으로써 보다 상세한 검토가 가능하다.

'좌목'을 통해 해당 일자에 왕명의 출납과 정무의 보좌를 맡았던 승지들의 근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조선 후기 당상관의 장기근무(久任)가 보장되지 않던 상황에서 승지들의 근속은 정치구조의 한 축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사'는 항상 왕의 위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조선 시대 국왕은 정치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왕의 이동에는 다양한 의례가 수반되었다. 국왕의 위치와 이동은 현재 연구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며, 승정원일기 DB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2) 연대기 DB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사료의 비교검토 가능

승정원일기 DB에서는 연대기 자료들의 상호 검토를 위해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분을 이용하면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승정원일기 원본 이미지를 비롯하여, 조선왕조실록, 비변사등록, 그리고 한국고전번역원의 국역승정원일기의 해당일자 화면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승정원일기DB 이용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사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다.

3) 인명 아이디 부여와 검색 결과 확장

598. 현종 14년 9월 9일 을해 1673년 / 恩翼閣에 奎祐明 등이 입시하여, 新陵石物과 曠世호 父子의 神主 遷遷에 관한 일을 논의함

明日, 士大夫等入聖廟之事, 爲近來禮節, 會有廟家長等, 而神不遵行, 至有極年等入, 使其家主, 無所止極, 呼冤極矣. 上曰, 命漢城府嚴蓋以啓, 佑明曰, 今此朝廷所定之事, 臣不敢有所更議, 而宋時烈, 乃山林望重大臣也, 寧有一言之非乎? 然人非鳥, 烏, 安得極事盡善? 其所發言, 人不得執議, 有問而大夫出言, 人莫敢極其非者也. 表石, 乃三百年所來行之事也. 時烈之疏中, 言新陵石物, 一位英陵城數萬卷之籍云, 元疏, 臣雖不得見之, 而英陵所無之表石, 今何可創立乎? 聖廟有萬世禮節, 則雖無表石, 豈不知先王陵寢乎? 如其來也, 則雖有表石, 亦可爲敬? 臣亦願與軍文物大備, 豈是可行之事, 則當時, 豈不爲之乎? 地力所入難多, 必不以此爲拘而不爲也. 英陵, 既無表石, 則先代所無之事, 何可創製乎? 此出於宋時烈, 故群臣不敢開口, 而新陵石立, 則各陵表石, 又不可不立也. 呼石之際, 所費極多, 況江華, 聖廟保護之地, 役民之事, 尤不可不備也. 上曰, 宋判府事 窮中所言...

599. 현종 14년 9월 11일 정축 1673년 / 鄭麟이 教諭事로 宋時烈의 거처에 나감

○ 右承旨鄭麟, 判府事宋時烈處, 教諭事出去.

600. 현종 14년 9월 12일 무인 1673년 / 宋時烈에게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申摺의 거

○ 假注書申摺書, 臣敢奉報此, 往傳于判府事宋時烈, 刻以爲, 伏承批諭, 不勝惶懼, 竊高少聞, 更陳情數云矣, 敬啓. 傳曰, 知道.

601. 현종 14년 9월 12일 무인 1673년 / 鄭麟이 宋時烈에게 傳諭하고 들어옴

○ 右承旨鄭麟, 宋判府事處, 教諭後, 入來.

승정원일기DB에서는 키워드 검색 결과에 대해 확장성을 확보하였다. 위 화면은 '宋時烈'에 대한 검색 결과 중 하나이다. 우선 '宋時烈'과 '宋判府事'가 모두 검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DB구축과정에서 인명에 특정 아이디 값을 부여하고, 해당 인물의 字, 號, 別稱, 姓+官職名 등에 아이디 값을 적용시킴으로써 일대일 검색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키워드의 검색 결과가 한 기사에 두 개 이상 나올 경우 그 결과물을 기사화면에서 모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위의 첫 번째 기사에서는 '宋時烈'의 결과 값이 총4회가 나왔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기사의 분량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한국학 연구 영역의 확대

1)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연구 실적의 증가

조선 후기를 주제로 한 연구 논문 작성시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수치, 즉 인용도 조사를 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2000년 조선 후기를 다룬 논문 85편 가운데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논문은 7편으로 8%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에는 조선 후기 논문 202편 가운데 승정원일기를 인용한 논문이 86편으로 43%로 늘어났다. 승정원일기 정보화사업 시작 전에 비해 5.4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 조사에서 조선 후기 논문을 작성한 필자 수는 926명이었고, 이 중에 303명이 승정원일기를 이용하였다.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논문은 658편이다. 승정원일기를 이용하여 1인당 평균 2편 이상의 논문을 집필하였다. 다시 말해 승정원일기 DB 구축이 진행되어가는 것과 비례하여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연구 논문의 숫자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2) 분야별 연구 영역의 다양화

승정원일기에는 정치·경제·사회사를 비롯한 역사 관련 분야의 기록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타 분야의 기록도 대거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각 분야에서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편의상 몇몇 분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승정원일기 DB의 날씨 기록 이용과 기우제·기설제

승정원일기는 가장 먼저 승정원 승지들의 출석 현황인 座目を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나날이 날씨를 '晴', '陰', '雨', '或陰或晴', '朝陰夕晴', '朝晴夕小雨' 식의 형태로 기록하였다. 날씨를 기록하고 나서는 임금의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일식이나 월식, 유성의 출현과 같은 기상이변으로 여겼던 현상 등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빅데이터'로 정리하여 조선 후기 기상학 연구의 기초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이러한 날씨기록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써 기우제나 기설제와

같은 제의에 대한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이를테면 승정원일기 DB에서 '祈雨祭'를 검색하면 3,236건(실록 814건), '祈雪祭'는 130건(실록 24건)이 나온다. 때문에 DB의 날씨기록을 기우제나 기설제 같은 제의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은 승정원일기 자료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 하나일 것이다.

숙종 30년(1704) 4월 25일에 예조는 삼각산 등지에서 기우제를 설행할 것을 청하였고, 27일에 임금이 기우제 지낼 곳을 摘奸하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때부터 조정에서는 기우제가 하나의 현안으로 제기되어 6월까지 기우제에 대한 논의와 기우제 거행을 반복하였다. 그렇다면 기우제를 지낼 이 무렵에 실제로 얼마나 가뭄이 들었을까. 숙종 30년 날씨를 살펴보면, 1월에는 비가 내린 날 3일과 눈 내린 날이 하루도 불과하였다. 2월에는 비나 눈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 3월에는 비 내린 날이 하루도 없을뿐더러 흐린 날조차 4일에 불과하였다. 기우제 설행이 제기되고 기우제가 거행되었던 4월에도 비는 전혀 내리지 않았다. 기우제를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5월, 6월에도 단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 2월부터 6월까지 무려 5개월간 하루도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4월말에서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기우제를 거행하였다. 7월에 들어서야 10일과 11일에 가끔 비가 내렸고, 25일부터 27일까지 비가 내렸다. 숙종 30년에는 재앙 수준의 대가뭄이 휩쓸었음을 알 수 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조정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기우제'로 하늘에 정성을 다함으로써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길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기우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기우제 덕분에 비가 내렸다는 함경감사의 서목이다.

도내 각 읍의 한재가 매우 심해 기우제를 금방 설행하였고, 보고를 올릴 즈음에 함흥은 5월 6일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세차게 비가 내렸으니, 民事가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다(□승정원일기□ 숙종 27년 5월 14일).

기설제 또한 마찬가지로이다. 숙종 30년(1704) 11월 20일에 임금이 기설제를 설행하라는 비망기를 내렸다. 예조의 기설제 거행 건의가 뒤따르고, 기설제를 설행할 곳을

적간하라는 전교가 내렸다. 앞의 기우제 때의 기록과 연결하여 비나 눈이 내린 날을 보면, 이해 8월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9월에는 23일에 '小雨'라고 하여 비가 조금 내렸다. 이날 사시에 우박이 내렸는데 모양이 작은 콩 같다고 하였다. 10월에는 5일 아침에 비가 내렸다가 오후에 맑았다. 기설제가 제기된 11월에도 눈비는 없었다. 12월 16일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17일부터 19일까지 눈이 내렸다.

이를 종합하면 1704년을 통틀어 비온 날이 11일에 불과하였고, 눈 내린 날은 5일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기우제나 기설제를 올린 때의 날씨기록을 보면, 조정에서 제의를 올리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재해가 심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1704년의 날씨와 기우제, 기설제 거행만을 연결시켜 간단히 언급하였지만, 승정원일기에는 기우제나 기설제의 추진과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 무엇보다도 날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겠다. 또 자연재해로 인한 백성들의 인적, 물적 피해상황 등 경제적 부분과 이것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도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날씨와 연관된 기우제와 기설제 등을 기록한 것은 자연에 제사지냄으로써 소망을 들어주기를 기원하는 신앙 내지는 철학적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또 여기에는 제관을 선정하는 문제, 제관으로 선정된 이들의 齋戒를 포함한 근신하는 사항, 형정에 대한 사안과의 연계 문제 등 제례를 비롯한 정치, 사회사에 대한 복합적인 사안들을 해명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나. 승정원일기 DB와 자연재해

위의 기우제.기설제와도 관련되는 사안으로써 승정원일기에는 재해 관련 기록이 적지 않다. '旱災'가 제일 많은 1,391건이고, 다음으로 '水災'가 1,152건, '風災'가 266건, '蟲災'도 295건에 이른다. 이밖에도 '雹災' 204건, '霜災' 39건에 달한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해당 도의 관찰사는 서목을 올려 재해 현황을 보고하고 구호를 요청한다. 인조 7년 6월 19일에 전라감사는 "수재와 충재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가을걷이를 기대할 수 없어 백성의 일이 염려스럽다."라는 서목을 올렸다. 현종 14년(1673) 9월에 평안감사는 "상재와 박재가 매우 심하여 농사가 걱정"이라는 서목

을 올렸다. 숙종 39년 5월 11일에 경상감사는 “현풍 오습은 박재를, 대구 등 오습은 상재를, 함양에는 눈이 내렸으니, 일이 괴이합니다.”라는 서계를 올렸다.

앞의 ‘기우제’ 부분에서 예로 든 숙종 30년(1704)은 4월부터 9월까지 ‘한재’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이때는 전라감사가 “전주 등 14개 읍의 한재가 참혹하여 移種을 할 수 없다.”라고 하거나 함경감사의 “立苗와 各穀이 흑심하게 한재를 입어 앞으로의 민사가 참으로 근심스럽다.”는 서목을 보아도 전라도에서부터 함경도까지 전국에 걸친 대가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승정원일기 자료를 통하여 기우제나 기설제와 같은 제의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아 왔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대처법 외에도 조정에서는 나름의 현실적 방법, 이를테면 나무를 심어 가뭄을 늦춘다거나 저수지를 증설하는 방법 등을 꾸준히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해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어서 논의의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조정에서는 재해가 심할 때 임금이 이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뜻에서 정전을 피하여 다른 곳에서 거처하는 ‘避正殿’을 하고 반찬의 가짓수를 줄이는 ‘減膳’을 병행하였다. 나라에서 음악을 쉴 때 쓰지 않는 ‘撤樂’을 하고 ‘금주령’을 내리기도 한다. 모두 자신을 경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함으로써 재이를 극복하고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려는 처사라 하겠다. 승정원일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이러한 자료의 이용을 통하여 정치사나 사회사, 의례와도 연관하여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다. 승정원일기 DB와 산림

승정원일기 DB를 검색하다 보면 山林에 대한 기록이 예상 밖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조정에서는 山林을 川澤과 함께 ‘나라의 보물로 백성과 함께 누려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이용하는 것이 왕정의 큰일이므로 임금이라도 사사로이 남에게 줄 수 없고 신하로서도 마구 점유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인조 4년 3월 16일 기미). 산림은 그만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컸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산림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이 가운데서도 소나무 즉, '松林'의 보호에 집중하였다.

우리는 DB의 '송림' 기사 가운데 이른바 '植木摘奸事'의 추진 과정을 통하여 조정의 송림을 포함한 산림 정책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순조 8년 11월 3일에 가주서 柳誄의 서계에 따르면, 임금의 명에 의해 外南山의 식목적간을 시행하고 있다. 그는 승례문을 나서 南關王廟에 이른 다음 主山과 案山에 올라서 식목을 적간하였다. 그 결과 群木이 鬱然한 곳에 상수리나무 숲이 섞여 있었는데 베어낸 흔적은 없었다고 하였다. 靑鶴亭에 이르러서는 높고 낮은 산록이 모두 송림이며, 북쪽 기슭은 더욱 울창하여서 사람이 가까이 가기가 불가하였다. 비스듬히 동남쪽으로 가서 예전에 失火했던 곳에 도착하니 소나무를 심어놓은 곳을 볼 수 있었다. 비록 크기가 오래된 나무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무성하게 숲을 이루고 있었다. 典牲署 뒷면의 冷井洞에 도착하였는데, 큰 소나무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어서 산을 뒤덮고 있었다. 산을 내려와 南壇으로 가서 성벽을 둘러보니 무너지거나 훼손된 곳이 없었다. 주산과 안산의 소나무도 매우 무성하였다. 文峴을 살펴보고 이태원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서 숙박하였다.

요컨대 첫날 일정은 승례문→남관왕묘→주산과 안산→청학정→실화처→전생서 뒤쪽의 냉정동→남단→문현→이태원이다. 승정원일기에는 이와 같은 형식과 내용의 '식목적간사' 기록이 자주 나온다. 이를 통해 당시 산림 조성 상태는 물론이고, 조정의 산림 정책 일단을 알 수 있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이 송림 등을 대상으로 한 식목적간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승정원일기 DB에는 '松林'이 145회 나온다. 또 승정원일기에 '植木摘奸'은 131건 나오는데 비해, 실록에는 '식목적간'으로 검색하면 1건도 나오지 않는다. 식목적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조 22년 이후부터 집중되어 나오기 시작한다. 이를 다 분석하면 정책적인 이유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송림과 식목적간 기사를 일별하면, 송림이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현종 3년(1662) 6월 23일에 병조참판 柳赫然이 "巡城하다가 남산 봉수대를 바라봤는데, 송림이 울창하

여 볼 수 없으니, 불가불 베어내야 하겠다.”라고 보고하였다. 또 영조 3년(1727) 4월 9일에는 “송림 안에 백호가 있다.”라고 하였다. 모두 숲이 울창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조정의 산림정책을 파악하려면 DB에 들어 있는 ‘植木’ 1,203건(실록에는 131건)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松蟲의 피해와 산림정책 등의 관계에 대한 자료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松蟲’으로 검색되는 것만도 137건(실록 34건)에 이른다. 조정에서는 주로 여러 왕릉의 송충의 피해에 대하여 다른 곳보다 우선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였다. 또 송충 피해가 생기면 백성들을 동원하여 송충을 잡거나 나무를 베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숙종 11년(1685) 9월에는 송충의 피해가 매우 심했던 것 같다. 조정에서는 사직과 능침 이외는 그대로 두도록 할 정도였다. 서울의 산들에 송충이 치성하자 防民을 조발하여 송충을 잡으려 하였으나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송림에 들어가지 말고 도로변이나 수습하라고 한 것도 같은 뜻이다.

송충이 대량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조정에서는 ‘松蟲之災’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예조에서는 祈禳祭를 지내야 한다는 논의가 심각하게 일었다. 예조에서는 “송충지재’가 날로 치성하여 국중의 여러 산에서 오랜 기간 기른 수많은 나무들이 枯落하고 있으니 기양제를 지내야 한다.”는 논리였다. 결국 예조에서는 삼각산.목멱산.송악산 등지에서 내달(10월) 27일에 기양제를 지내라는 임금의 허락을 얻어내었다.

이러한 승정원일기 기사들을 통해서 조정의 송림에 대한 정책과 ‘송충지재’에 따른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송충지재’가 기양제로 이어지는 과정 즉, 국가 제의에 대한 사례까지 접근할 수 있다.

라. 승정원일기 DB와 인물

승정원일기 DB의 주목할 장점은 인물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다는 점이다. 인명색인이 약 800만 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것은 실록이나 비변사등록, 일성록에 비해

서 매우 상세하다.

특정 인물을 사례로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정조 때 문과 급제자인 高鳴鶴은 실록에는 2회 나오는 데 비해 승정원일기에는 76회나 등장한다. 정조실록에는 18년 4월 21일자에 고명학의 문과 급제 사실이 나오고, 순조 14년 4월 8일자에 濟州察理使 李在秀가 고명학 등이 行誼가 있으니 수용하라는 건의가 있었다.

먼저 실록의 정조 18년 4월 21일자 고명학 관련 기사를 요약하면, ① 제주어사 沈樂洙가 유생들을 시험하여 뽑고 그 시권을 수합하여 올려 보내니 국왕이 친히 과차를 매겼다. ② 이 때 정의현 유학 고명학이 시 분야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전시에 直赴하도록 하였다. ③ 그리고 영남과 관동지방의 예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하고 합격한 여러 시권과 함께 인쇄, 반포하도록 하고 이를 '耽羅賓興錄'이라 명명하였다.

승정원일기에는 이 날짜의 고명학 관련 기록이 실록의 ①과 ②에 비해 자세하다.

특히 ②의 경우는 논의 과정과 국왕의 발언이 실록에 비해 상세히 나와 있다. ③의 경우는 4월 21일자에는 없고 4월 27일자에 상세하게 나온다.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고명학 관련 기록들이 적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그의 관력이 상세한 기록이 주목할 만하다.

고명학은 문과 급제 후 11개월 만에 假注書에 임용되었다. 이때 임금이 그를 포함한 제주 출신 급제자 5인을 重熙堂으로 불렀다. 임금은 언제 상경했는지부터 제주도의 민정에 대해 물었다. 고명학 등은 흉년으로 위급했었는데 임금께서 여러 차례 船粟을 보내줘서 명을 보전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올렸다. 또 整理穀 만석을 내려 보내줘서 모두가 나눠먹었고 이후에는 다른 염려가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임금은 정리곡은 慈宮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푼 것이므로, 제주에 가거든 자궁의 은혜를 널리 알리라고 하였다. 또 임금은 제주사람이 내려가고 올라올 때 草料를 병급하는 일 등에 대해 병조와 이조에 분부하였다. 이러한 기록은 승정원일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정조 때 고명학은 성균관 典籍, 훈련원 主簿, 성균관 直講, 保安察訪을 지냈다. 순조 때는 副司果, 전적, 肇慶廟令, 厚陵令을 지냈고, 순조 14년에 사헌부 掌書에 임용되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때 고명학은 제주에 있

였으므로 부임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순조 14년 11월 5일에 '掌令高鳴鶴在外'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여 12월 10일까지 동일한 기사가 35회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한 사실은 실록은 물론이고, 일성록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후에 고명학은 副司直에 제수되었고, 순조 19년 10월 14일자에 大靜縣監이 되었다. 그러나 몇 개월 후인 순조 20년 2월 22일자 제주방어사의 장계에 따르면, 고명학이 부친상을 당했다고 한다. 이후 고명학은 다시 장령에 임용되었으나, '在外'라고 한 것으로 봐서, 부임하지 않고 제주에 머물렀던 것 같다.

한편 승정원일기에는 고명학의 부친 高天柱가 나이 83세로 通政으로 加資된 사실도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승정원일기에는 실록에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일성록에도 빠진 인물 관련 기록이 상세하게 실려 있다. 인물사에 대한 연구는 승정원일기가 주축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특정 인물의 관직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를 빼놓고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마. 다양한 분야에서 승정원일기 데이터베이스 활용 기대

위에서 승정원일기를 이용하는데 특정 분야를 예로 들어 서술하였지만, 그 분야의 기록이 다른 분야보다 많다거나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밖에도 승정원일기에는 여러 분야에 걸쳐 핵심적인 사안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왕실 의학을 중심으로 하는 韓醫學에 대한 기록은 그 양과 질에서 독보적이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만큼 기록이 충실하기 때문일 것이다. 대중적 관심을 등에 업고 한국사 연구자들을 비롯한 소설가들까지 국왕 독살설에 대해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학 쪽에서는 승정원일기 기록을 의학적으로 분석하여 독살설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 분야는 역사학과 한의학 전공자들의 공동 연구도 기대된다. 이를테면 승정원일기에 나오는 약재 이름, 처방전 등을 정리하여 사전을 만드는 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후 그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승정원일기에는 국왕이 궁궐을 나서는 장면부터 종묘에 나아가 제사를 지내고 환궁하는 과정까지 그림을 보듯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는 등 국가 의례를 비중 있

고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의례 연구와 맞물려 승정원일기를 이용한 연구 논문 편수가 급증하고 있다. 조선시대 국가 의례 연구에 획기적 진전이 기대된다.

서지학 관련 기록도 주목할 만하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췌한 색인어 중에 書名이 무려 350,000건(중복 포함)에 이른다. 이에 대한 본격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지명과 인명을 색인어로 발췌하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다.

이밖에도 법률, 음악, 복식, 미술, 문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방대한 양의 기록이 대거 들어 있다. 승정원일기 원문DB구축 완료로 계기로 한국학 제 분야에서 승정원일기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